



최경주가 16일(한국시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허버타운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버라이즌 헤리티지 1라운드 18번 홀에서 티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상승세 최경주 2년만에 우승컵 드나

### PGA 버라이즌 헤리티지 1R 7언더 단독 선두

“우즈와 같이 경기를 하고 나니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더군요.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난주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에서 선전을 펼쳤던 ‘탱크’ 최경주의 샷이 다시 불을 뿜었다.

최경주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트헤드 아일랜드의 허버타운 골프장(파71.6천973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버라이즌 헤리티지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4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버디는 8개를 쓸어담았고 보기는 1개로 막은 최경주는 공동 2위 마이크 웨어(캐나다)와 그렉 오웬(잉글랜드) 이상 5언더파 66타를 2타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로 나섰다.

지난주 마스터스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와 나흘 내내 맞붙어 공동 4위에 올랐던 최경주는 2008년 1월 소니오픈 이후 2년만에 우승컵을 차지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최경주는 2008년 9월 BMW 챔피언십 3라운드 이후 18개월만에 64타를 적어냈다. PGA 투어 생애 최저타는 2003년에 두차례 기록한 62타.

스코어도 좋았지만 초반에 티샷이 안좋아 찾은 위기를 잘 넘기는 등 경기운영이 돋보였다.

페어웨이 안착률 50%를 기록한 최경주는 전반에 타수를 잃을 뻔했던 투어 버라이즌 헤리티지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4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버디는 8개를 쓸어담았고 보기는 1개로 막은 최경주는 공동 2위 마이크 웨어(캐나다)와 그렉 오웬(잉글랜드) 이상 5언더파 66타를 2타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로 나섰다.

지난주 마스터스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와 나흘 내내 맞붙어 공동 4위에 올랐던 최경주는 2008년 1월 소니오픈 이후 2년만에 우승컵을 차지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계속 좋다. 무엇보다 이곳 팬들이 나를 많이 알아보고 격려해준다. (우즈와 동반플레이를 해서 그런지)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초청선수로 출전한 지난해 US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 안병훈(19)은 2언더파 69타를 치며 공동 28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와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은 1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46위에 머물렀다.

마스터스대회의 여파로 상위랭커들이 이번 대회에 많이 출전하지 않았지만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짐 퓨릭을 비롯해 신인 리키 파올라(이상 미국) 등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4언더파 67타를 치며 4위 그룹을 형성, 최경주를 추격했다. /연합뉴스

### 여자축구 심판 흥은아씨

#### 영 여자FA컵 결승전 주심

여자축구 심판인 흥은아(30)씨가 아시아인 최초로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주최하는 여자 FA컵 결승전 주심으로 나선다.

한국 심판으로는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 자격을 얻었던 흥은아씨는 16일(한국시각)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5월3일 노팅엄 프



레스트구장에서 열린 아스널과 에버턴 간 결승 경기 주심으로 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자 FA컵 역사상 아시아인 결승전 주심은 흥씨가 최초, 비영국인이 여자 FA컵 결승전 주심을 보는 건 이 대회가 창설된 1972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 이종범 광주구장 최다 홈런 주인공 됐다

### 두산경기서 솔로포

#### 홈서 113번째 홈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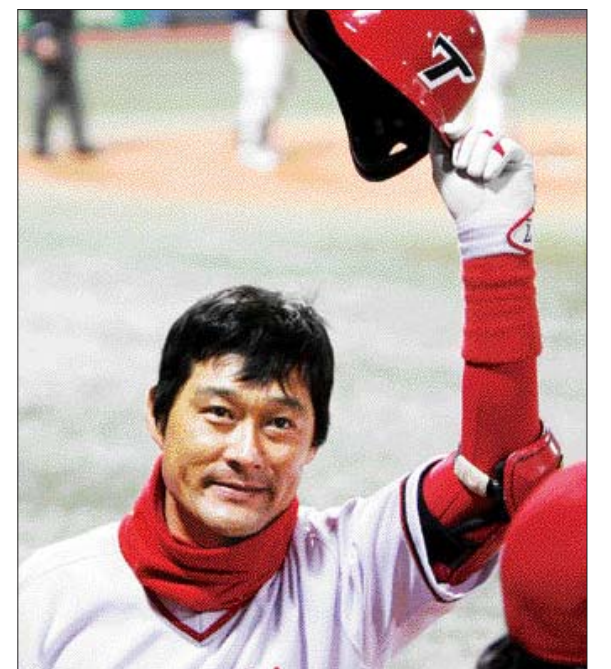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의 백전노장 이종범이 광주구장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이종범은 지난 1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 푼타자로 나서 3-3으로 비기던 8회말 정재훈을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올렸다.

팀의 4-3 재역전승을 주도한 자신의 시즌 첫 홈런이자 광주구장에서 장식한 113번째 홈런이었다.

이종범은 귀중한 결승 홈런으로 흥현우가 보유하고 있던 광주구장 홈런 112개의 기록을 뛰어넘으며 홈구장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터트린 타이거즈 맨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 환측

▲최창돈(광주·전남히말라야클럽회장)·최명희씨(삼너 영양영철·모구심)의 장남 세훈군=17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상무지구 조선컨벤션웨딩 3층(컨벤션홀)

▲최 흥(신화종합건설)·문영숙씨 차남 상준군 주성희씨 막내 박연미양=17일(토) 오후 2시30분 상무지구 에벌루션웨딩컨벤션 2

층(라벤더홀)

▲이승진(이화플리텍 대표이사)·김성애씨 장남 동훈군 오이철·장용임씨 막내 주희양=17일(토) 낮 12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유병길·이순덕씨 차남 재섭군 임학렬·조미희씨 장녀 은정양=17일(토) 오후 1시 화이트하우스 1층(특그랜드홀)

▲홍석태(전남도 건설방재국장)·최향남씨 삼남 영균(남양유업)군 조문환(공군 제1전투비행단)·김명희씨 장녀 은희(롯데카드)양=17일(토)오전11시10분 광주 상무지구에벌루션웨딩홀 1층

▲김덕순씨 차남 김성훈군 정준식·김성자씨 삼녀 명희양=18일(일) 오후 1시 메리이트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박동근씨 차남 지성군 김길환(전남화약 대표)·추공심씨 장녀 하니양=18일(일) 오전 11시30분 조선컨벤션 웨딩홀 3층(컨벤션홀)

### 무음

▲김권중(전 광주일보 논설위원)씨 별세 김미자씨 상배 정리·수정씨 부친상 김재창씨 부부상=발인 17일(토)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062-973-9164.

마음까지 편안함-  
**금호장례식장**  
 ☎ 227-4000

故 김옥례님 (여/79세)  
 주/부: 황용환/황금선, 황용세/김래숙  
 황용관/황관진, 황용순/박은희  
 호/계: 황희숙/박성식

호실: 특실 201호  
 발인: 04월 17일  
 장지: 나주 다도선영

故 이병규님 (남/80세)  
 주/부: 이영리/조연숙, 이영래/박수희  
 이영진/박정희  
 호: 이현남/박정희

호실: 특실 401호  
 발인: 04월 17일  
 장지: 보성 권대선영

참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추차장 - 정갈한 음식!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주) 현대중앙상조 가자점  
 가입문의 1688-3740

대한민국 중심방송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02-7379-8000

RADIO  
 100.7MHz  
 101.7MHz

가톨릭방송  
 CBS  
 080-800-1031

ITV  
 101.7MHz